

한화그룹 관계사 비자금 의혹

태경화성, 서초구 본사 수색 ... 김승연 회장 은닉재산 관여

검찰이 한화그룹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원곤 부장검사)는 10월19일 한화그룹 관계사인 태경화성의 서울 서초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태경화성은 전 한화그룹 임직원들이 자본금 7억8500만원으로 설립했으며 그룹 계열사인 한화케미칼에 화공 약품을 납품하고 있다. 상시 종업원은 18명으로 2009년 약 79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태경화성은 2009년 보유하고 있던 전 한화 계열사 한익스프레스의 지분 60만9261주(50.77%)를 김승연 회장의 누나인 김영혜씨에게 장외 매각하기도 했다.

검찰은 10월19일 오전 태경화성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재무자료와 전표, 컴퓨터 등 박스 30-40개 분량의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태경화성이 김승연 회장의 은닉재산을 불리는 데 관여했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0/20>